

삼성 KPMG

ISSUE MONITOR

제69호

February 2017

삼성KPMG 경제연구원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요인

: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38

gwangsukkim@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한국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수출	4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수출'이 경제회복을 막다	4
주력 수출품이 더 이상 주력이 아니다	5
'수출 한국'의 지위, 두 계단 하락	6
	7
한국 수출의 8대 리스크 요인	
(1) 국경세 Vs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7
(2)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8
(3) 환율 절상압력	9
(4) 보호무역 조치 확대	10
(5)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11
(6) G2갈등과 '새우등 터질 위협'	12
(7) FTA 지형변화 가능성 확대	13
(8) 수출경쟁력 악화	14
	15
기업의 대응 전략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오히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가 디커플링(decoupling)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있다. 내수가 위축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출을 위협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7년 한국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8대 리스크 요인들을 규명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기업들은 몇몇 대상국에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고, 환율 급변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수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 한국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수출

- 수출로 성장하던 공식이 깨지고 있을 만큼 수출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있어, 기업들은 수출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
- 선박, 가전,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2015년, 2016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비상등이 켜진 상황

■ 한국 수출의 8대 리스크 요인

- (1) **국경세 Vs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재 수출 기업들과 우회수출의 공급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예상
- (2)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 미국 연준이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확대 되고, 신흥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 구조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 **환율 절상압력** : 2017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시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 될 시 환율 절상 압력 가중
- (4) **보호무역 조치 확대**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더욱 빠르게 증가
- (5)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성장세가 정체
- (6) **G2갈등과 '새우등 터질 위협'**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고조
- (7) **FTA 지형변화 가능성 확대** : FTA를 지향했던 한국의 수출구조에는 FTA 지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임
- (8) **수출경쟁력 약화** : 신흥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미약해 지고 있음

■ 기업의 대응 전략

- 기업들은 한국 수출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각각의 리스크 요인과 기업의 대응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 (1) 글로벌 공급사슬구조의 유연화 검토, (2) 수출 대상국 다변화, (3)모니터링 기능 강화, (4)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적 대응, (5) 내수 서비스의 수출 강화, (6) 정부와의 정책 공조 노력 강화, (7) 유연한 FTA 활용 능력 확보, (8) 수출대상국 맞춤형 된 상품 기획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한국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수출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수출'이 경제회복을 막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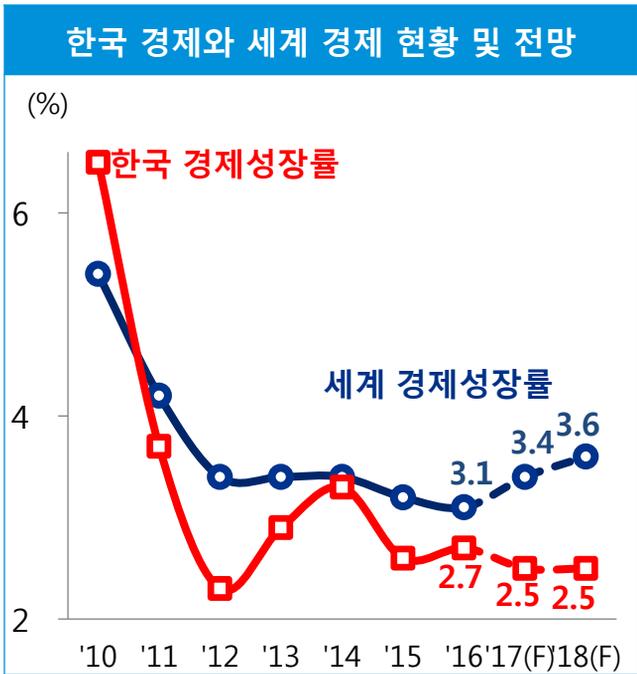
세계 경제가 2016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3.4%, 3.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IMF, 2017.1).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출 침체... 기업들은 침체된 수출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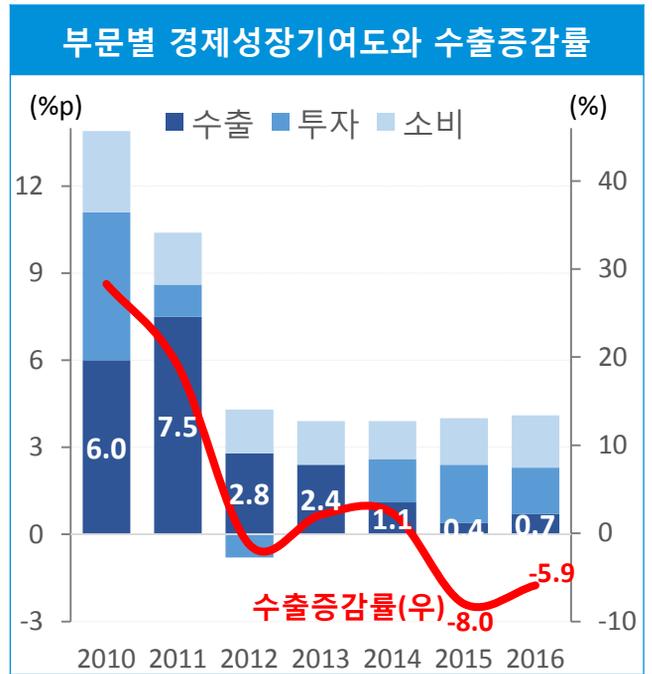
”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수출 성적표를 보면 그런 사실을 찾아보기가 힘든 수준이다.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2015년 -8.0%, 2016년 -5.9%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만 해도 각각 6.0%p, 7.5%p에 달하던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 1%p를 하회한다. 2015년과 2016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각각 0.4%p, 0.7%p에 달한다.

내수가 위축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016년까지는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불황 등의 영향으로 수출침체가 지속되어 왔었다. 2017년 1월, 2월 들어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기저효과 및 수출단가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지 엄격한 의미의 수출회복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 2017년 경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들은 수출을 위협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Source: IMF(2017.1), 한국은행(2017.1),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주력 수출품이 더 이상 주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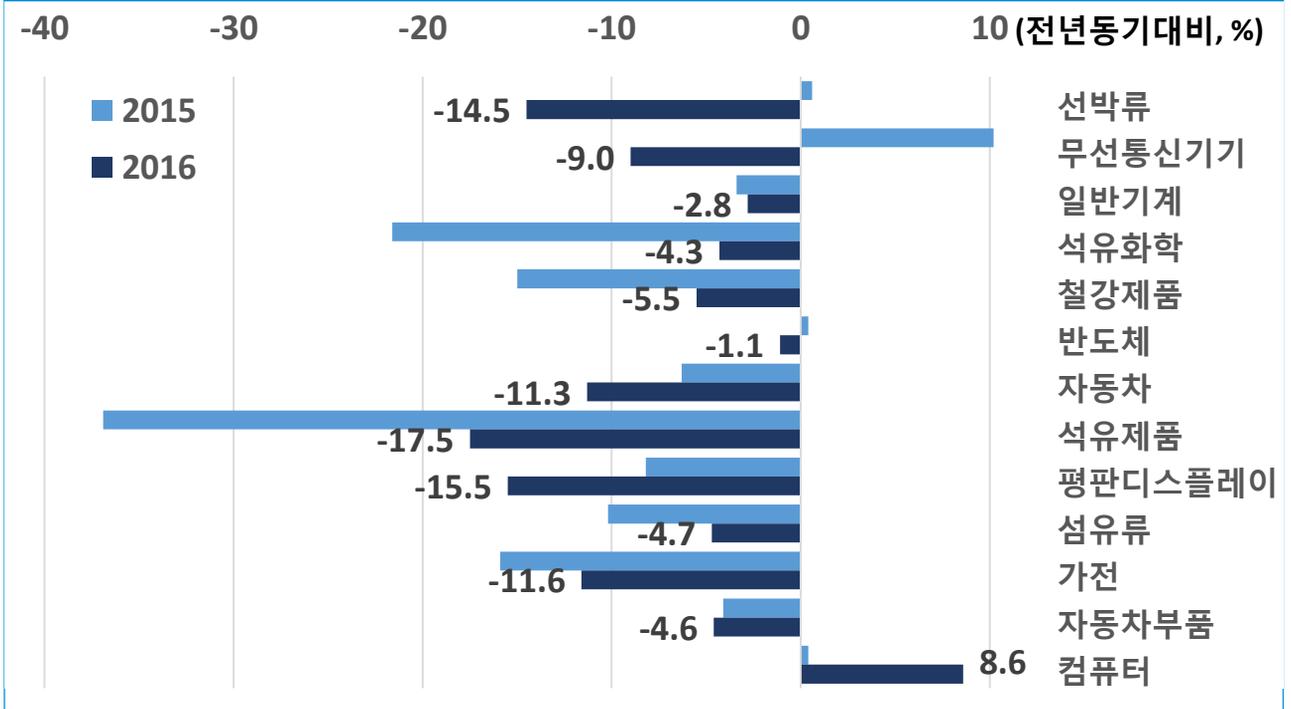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2015년 한해 동안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졌거나, 감소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한국의 총 수출에서 약 77.9%를 차지한다(2016년 기준).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감률은 2015년 -9.4%, 2016년 -7.7%로,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더 이상 주력이 아닌게 되고 있다.

“ 2015년에도
마이너스였던,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들...
2016년에도 마이너스
기록 ”

선박류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 수출증감률이 2015년에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선박류는 저유가 추세로 인해 해양플랜트 발주가 급감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무선통신기기는 선진국의 시장이 포화되면서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후발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지휘를 잃고 있다. 반도체도 D램 가격 하락과 신흥국 제조업체들의 재고물량 과다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은 2015년에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6년 들어 플러스를 기록하는 주력 수출품목은 컴퓨터 하나 뿐이다.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감률



Source: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수출 한국'의 지위, 두 계단 하락

2016년 들어 '수출 한국'의 지위가 내려갔다. 2015년 세계 6위국으로서의 수출대국이 2016년 8위국으로 하락했다. 세계 10위권 수출국 중에서 수출국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 나라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영국과 함께 단 2개 나라에 불과하다.

“수출대국으로서 한국의 지위도 두 계단 격하되...”



2012년 한국의 수출액은 5,488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5,731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연속 수출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2016년 수출액은 4,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까지 세계 수출대국 7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2015년에는 6위로 부상하기도 했으나, 2016년 들어 8위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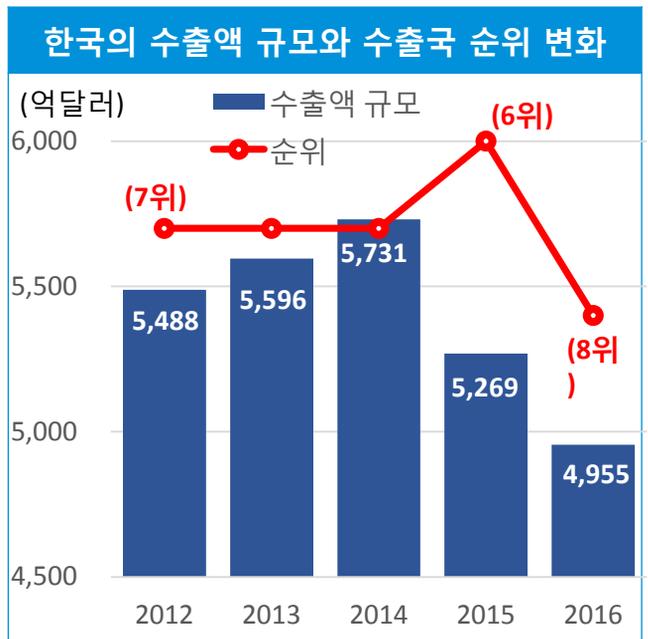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2016년에 교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과 주요 신흥국에 편향적으로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구조는 주요국들의 경기침체 및 위기로 함께 흔들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주력산업이 신흥국들로부터 추격을 받는 과정에서 수출이 위축되기도 했다.

“2017년 수출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2017년 세계 교역 규모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IMF, 2017.1).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게 됨에 따라 교역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 한국 수출을 위협시킬 다양한 대내외적 리스크요인들이 펼쳐져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국 수출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Top 10 수출국 순위			
	2015		2016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일본		일본
5	네덜란드		네덜란드
6	한국	두 계단 하락	홍콩
7	홍콩		프랑스
8	프랑스	한 계단 하락	한국
9	영국		이탈리아
10	이탈리아		영국



Source: WTO

Source: WTO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한국 수출의 8대 리스크 요인

“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재 수출 기업들과 우회수출의 공급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예상 ”

(1) 국경세 Vs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자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국경조정세 보다는 단순한 국경세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경조정제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만 WTO 규정에 위배될 것 등의 논점에서 찬반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 국경세와 국경조정세 비교 >

국경세(border tax)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직접 관세부과라는 차원에서 '무역정책'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인 법인세 개혁에 포함된 국경조정세는 '세금정책'으로서, 미국기업의 수입품 사용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인정하고, 수출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 - 징벌적 성격이 강한 국경세와는 차별

Source: 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현재 미국의 법인세 제도는 '생산지 기준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하더라도 국내 판매와 동일하게 법인세가 적용된다. 이를 '도착지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수출된 매출액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고, 도착지 기준의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들과 우회수출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수입시장이 크게 축소되고 글로벌 벨류체인이 크게 혼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달러)	
	현행	도입 후
매출	1,000	1,000
부품비(수입)	-500	-500
판매비·관리비	-200	-200
세전 수익	300	300
과세 총액	300	800
법인소득세	(X35%) 105	(X20%) 160
세후 수익	195	140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KOTRA

	(단위 : 달러)	
	현행	도입 후
매출(수출)	1,000	1,000
부품비	-500	-500
판매비·관리비	-200	-200
세전 수익	300	300
과세 총액	300	300
법인소득세	(X35%) 105	0
세후 수익	195	300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KOTRA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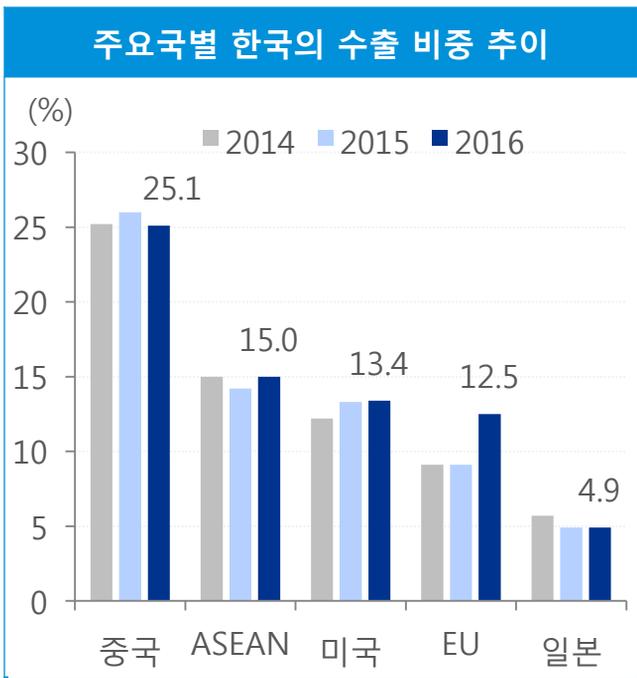
(2)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미국 수출 개선만으로는 한국 수출이 개선되기 어렵다. 한국의 수출구조가 아시아 신흥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 ASEAN이 15.0%로 아시아 주요 신흥국만 해도 40%를 넘어선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13.4%, 12.5%로 크게 높지 않다. 아시아 신흥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구조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신흥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할 경우, 한국의 수출도 함께 침체되는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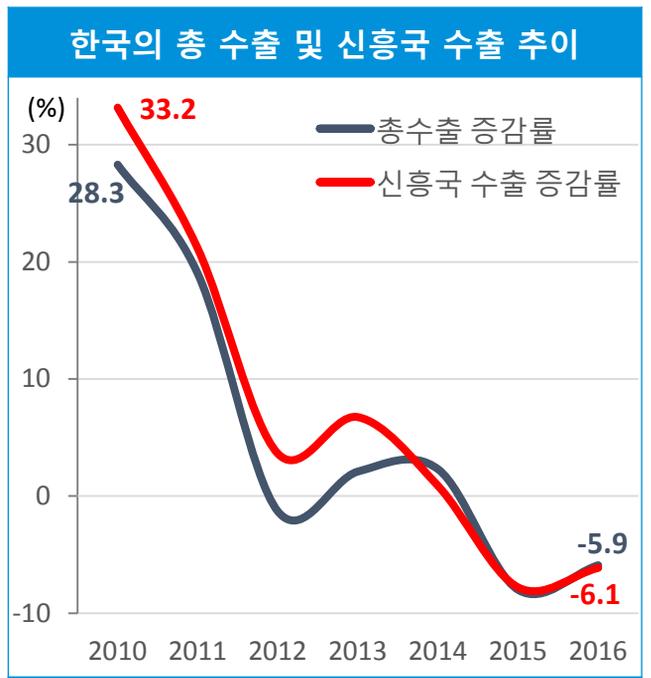
“ 미국 연준이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확대되고, 신흥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구조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16년 수출침체는 대신흥국 수출 부진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총 수출증감률이 -5.9%인데, 대신흥국(중국과 ASEAN을 기준으로 함) 수출증감률은 -6.1%로 더 낮다. 2010년 신흥국 수출은 33.2%의 증감률을 기록하는 등, 2013년까지 총 수출증감률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침체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2016년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17년 한 해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가치와 신흥국 통화가치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투자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 나오면서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국에 의존적인 한국 수출은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산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산
Note: 신흥국은 중국과 ASEAN을 기준으로 함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3) 환율 절상압력

미국은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세가지 기준(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환율개입)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미국의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원화절상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기조 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게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환율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 및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리스크가 있다.

더욱이,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진 등을 위한 미·중·일 간 환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2012년 1월 이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각각 4.1%, 9.4%, 34.4% 절하되었다(2016.12.26 기준). 일본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시점 하에서, 일본을 제외한 채 한국의 원화가치만 절상하게 될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대외국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17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시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될 시 환율 절상 압력 가중 ”

미국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환율정책평가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개입규모	결정
기준	<20.0>	<3.0>	<2.0>	
중국	356.1	2.4	-5.1	감시
일본	67.6	3.7	-	감시
멕시코	62.6	-2.9	-2.2	-
한국	30.2	7.9	-1.8	감시
대만	13.6	14.8	2.5	감시
스위스	12.9	10.0	9.1	감시
독일	71.1	9.1	-	감시
이탈리아	28.3	2.3	-	-



Source: 미 재무부(2016.10), 한국은행

Note:1) 무역수지는 2015.6~2016.6 기준 금액

2) 경상수지는 GDP 대비 %

3) 개입규모는 외환시장 순매수 규모의 GDP 대비 %

4) 음역부분은 기준 초과를 의미

Source: Bloomberg

Note: 2012.1.1의 달러인덱스와 위안화, 엔화, 원화의 미달러화대비 명목환율 기준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4) 보호무역 조치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누적 기준)는 반덤핑관세,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WTO 설립(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는 2000년 7월~2004년 6월 동안 3,750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4,652건으로 약 24.1%가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92건에서 134건으로 약 45.7% 증가하였다. 즉,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더욱 빠르게 증가 ”

< 세계와 한국에 부과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 비교 >

(단위 : 건수, %)

	위생검역		반덤핑		상계관세		총계	
	세계	한국	세계	한국	세계	한국	세계	한국
'00~'04	2,460	-	1,217	89	73	3	3,750	92
'04~'08	3,167	-	947	63	43	3	4,157	66
'08~'12	3,751	5	987	57	98	3	4,836	65
'12~'16	3,293	19	1,205	105	154	10	4,652	134
증감률	33.9	-	-1.0	18.0	111.0	233.3	24.1	45.7

Source: WTO

Note: 각 기간은 시작 년도의 7월부터 종료 년도의 6월을 기준으로 함

최근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들을 보면, 기술장벽, 위생검역, 상계관세, 반덤핑 등 매우 다양하다. 전자/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에 관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위생검역 수준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사드배치 등의 군사·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대국간의 교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관련 주요 조치 사례

중국	미국
- 한국 대기업 세무조사 시행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금지	- 중국에서 제조한 가전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
-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정	- 가전제품 우회수출 억제
- 전세기 운항 금지	- 식품·의약품 안전성 입증 자료제출 의무화
- 식품 및 화장품 수입 불허	- 화장품 정기검사 필수
-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	- 가정용 조명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납성분 함유량 표시 강제 의무화
- 한류 콘텐츠 한중 공동 제작 금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주요기관 자료 종합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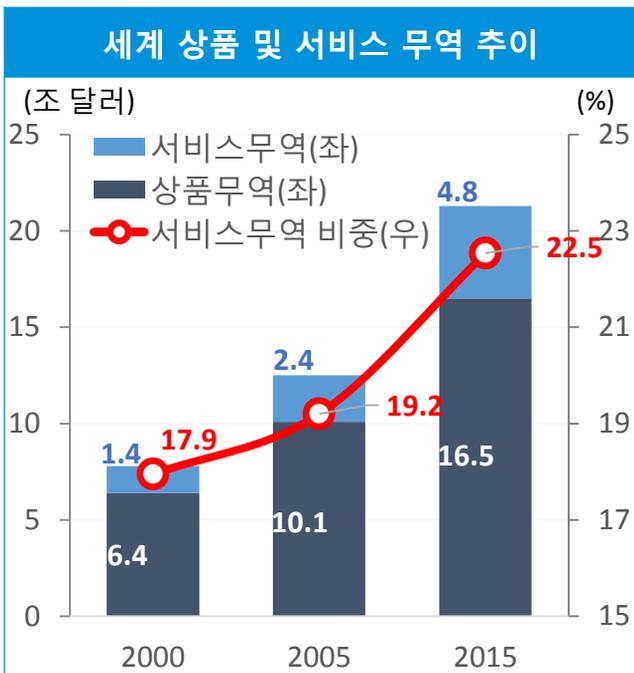
(5)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이 약진하고 있다. 상품무역(commodity trade)의 성장세보다 서비스무역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품무역은 2000년 6.4조 달러에서 2015년 16.5조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1.4조 달러에서 4.8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세계 교역규모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9%에서 22.5%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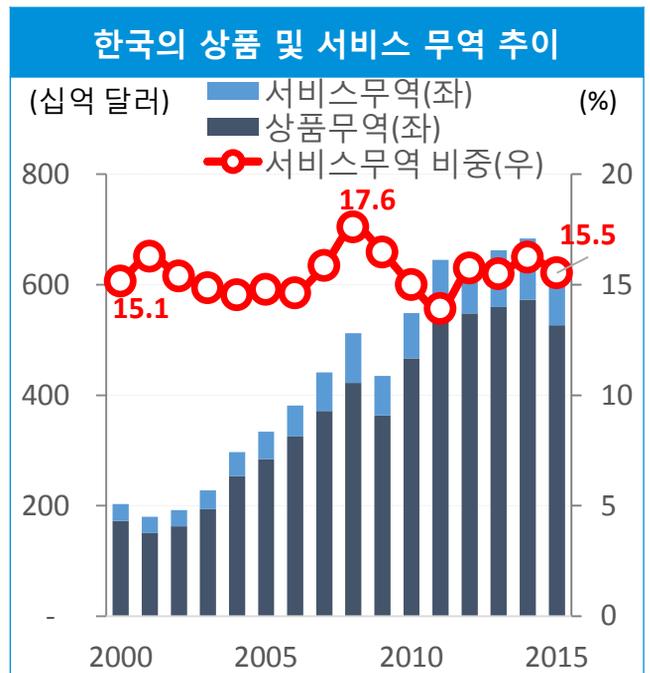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쟁점...”

경제 성장축이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옮겨지면서 서비스 무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SC, Global Supply Chain)이 확대되면서 완제품의 교역보다 부분품 교역이 확대되면서 상품무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금융, 보험, 법률, 경영컨설팅, 교육, 운송 등의 전통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기술사용료 등의 서비스 무역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계 각국은 수익성 높은 스마트 지식기반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수출구조는 서비스무역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총 수출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2008년 17.6%에서 오히려 하락해왔다. VAX(Value-Added Content of Trade) 비율은 서비스업이 1.46%, 제조업이 0.44%로, 서비스업이 세계교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다. VAX 비율은 산업별·국가별 세계무역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수출에 의존적인 한국 수출구조는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된다.



Source: WTO Statistical Program



Source: WTO Statistical Program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6) G2갈등과 '새우등 터질 위험'

G2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전쟁이 무역이라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00년까지 세계 교역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990년 세계 교역에서 15위에 불과하던 중국은 점차 그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 7위를 기록하였고, 2010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고조 ”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을 시작하면서 'Make the U.S. Great Again'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후보시절부터 주장했듯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해왔다. 양국 관계는 향후 보복에 맞보복으로 대응하는 악순환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당시 의정서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15년이 지난 2016년 말에는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야 함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7년 1월 들어 미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1월 11일,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주정박 사료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업체의 손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2일 미국은 중국 금융부문의 저금리 대출과 불법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알루미늄 산업에 부당이익이 제공되었다고 WTO에 정식 제소하였다. 이어 25일에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을 인정하여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간의 통상갈등은 한국의 한국 수출환경도 악화시키고, 경제공조를 어디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Top 10 교역국 순위				
	1990	2000	2010	2015
1	독일	미국	중국	중국
2	미국	독일	미국	미국
3	일본	일본	독일	독일
4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5	영국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6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한국
7	네덜란드	중국	한국	홍콩
8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9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영국
10	USSR	홍콩	벨기에	이탈리아

Source: WTO Statistical Program
Note: 1990년 중국은 15위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갈등 사례와 예상		
	미국	중국
2017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WTO에 제소 -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사료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
향후 예상되는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부과 - 미 기업의 중국 진출 제동 - 중국의 M&A 승인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잉 항공기 구매 축소 - 미국산 자동차·휴대폰 규제 - 미국 국채 매각 -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종합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7) FTA 지형 변화 가능성 확대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년 1월 31일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TPP 탈퇴 공식 서한을 송부하였다. 서한에는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명기하여 비준절차 포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 밖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NAFTA 개정 또는 탈퇴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FTA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FTA를 지향했던 한국의 수출구조에는 FTA 지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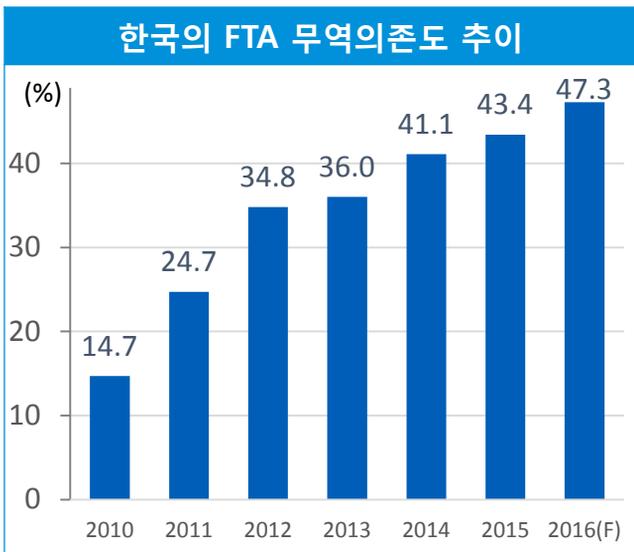
< 트럼프의 무역협정 관련 주요 공약과 주요 영향 >

무역협정 관련 주요 공약	주요 영향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 보호무역주의 및 수입규제 강화
-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 환율 등 변동성 확대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또는 탈퇴	- 정책 불확실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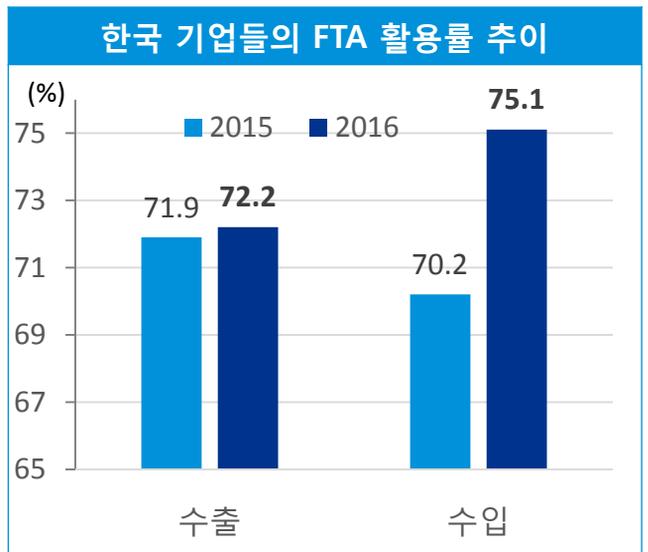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국의 무역은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2010년 FTA 발효국에 대한 의존도는 14.7%에 불과했으나, 2015년 43.4%, 2016년 47.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기업들은 수출과 수입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2016년 동안 수출과 수입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승하였다.

정부도 개별 국가·경제권과 FTA 신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TPP 탈퇴 및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구조의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은 비관세 혜택 추구 및 공급사슬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성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관세청
 Note: FTA 무역의존도는 전체 무역량에서 FTA체결국과의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Source: 관세청
 Note: 1) 전년대비 증감 비교를 위해 중국·뉴질랜드·콜롬비아 제외
 2) 수출활용률=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 특혜관세 품목 수출액
 3) 수입활용률=실제 특혜관세 적용된 수입액 / 특혜관세 품목 수입액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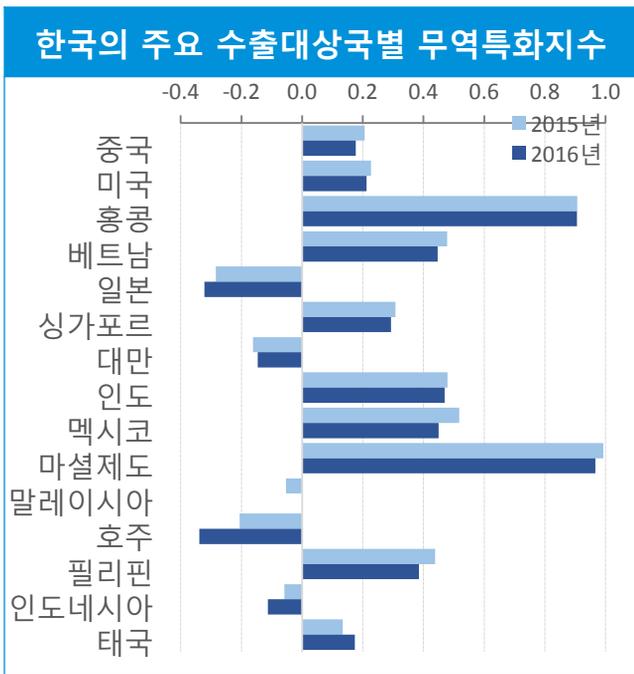
(8) 수출경쟁력 악화

수출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들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부적 요인들도 있지만, 한국 내부에도 있다. 바로 수출경쟁력이다. 수출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무역특화지수(TSI)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 정도이며, 1이면 완전수출특화 상태를 의미하고, -1이면 완전수입특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지수는 수출의 국제경쟁력지수로 사용되며, 높을 수록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낮을 수록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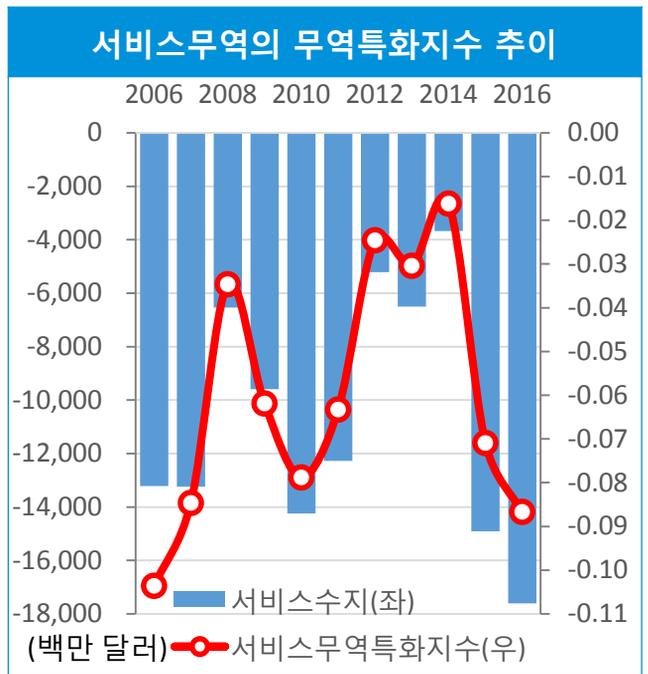
“ 신흥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미약해지고 있어... ”

한국의 상위 15대 수출대상국들의 무역특화지수를 추산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5년 보다 2016년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2016년 동안 무역특화지수는 중국에서 0.206에서 0.177로, 미국에서 0.227에서 0.212로 각각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우 -284에서 -0.322로, 호주의 경우 -0.206에서 -0.339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주요 수출대상국들에게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만성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무역특화지수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보험, 금융, 컨설팅,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영역에 걸쳐 수출경쟁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산
 Note: $TSI_i = \frac{EX_i - IM_i}{EX_i + IM_i}$, (EX=수출, EM=수입, i=국가)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 이용 추산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은 환경에 둘러 쌓여 있고, 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함께 변화해야만 한다. 아니 먼저 변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한국 수출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리스크 요인과 기업의 대응 전략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 수출의 리스크 요인

- 국경세 Vs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 환율 절상압력
- 보호무역 조치 확대
-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 G2갈등과 '새우등 터질 위험'
- FTA 지형변화 가능성 확대
- 수출경쟁력 악화

기업의 대응 전략

- (1) 글로벌 공급사슬구조의 유연화 검토
- (2) 수출 대상국 다변화
- (3) 모니터링 기능 강화
- (4)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적 대응
- (5) 내수 서비스의 수출 강화
- (6) 정부와의 정책 공조 노력 강화
- (7) 유연한 FTA 활용 능력 확보
- (8) 수출대상국 맞춤형 된 상품 기획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국경조정세 가 도입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구조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 ”

(1) 글로벌 공급사슬구조의 유연화 검토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EU를 포함한 미국 주요 교역국들이 국경세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조정세가 도입되거나, 완화적인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경조정세가 도입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제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신흥국 투자 진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국경조정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즉, 국경조정세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사슬구조를 유연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국가에 편향된 공급사슬구조 보다는 다국적인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조정세 도입 등의 교역조건 변화에 맞게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 몇몇 대상국에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고, 환율 급변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 ”

(2) 수출 대상국 다변화

한국 수출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몇몇 대상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흥국들이 고도 성장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수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질 때 수출이 크게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7년과 같이 미국 기준금리와 트럼프의 강한 경제정책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험이 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신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및 상품 기획 노력이 요구된다.

(3)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와 환율 절상압력 등은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높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들은 환율, 금리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RC(Resilience Committee)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과 주요국의 위기 발생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주목하고, 환율 급변등 가능성 및 시점에 유의하여 환헷지 등의 재무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보호무역 조치에 조기 대응하고, FTA 지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라 ”

(4)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적 대응

기업들이 각국의 반덤핑·상계조치를 피해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반 대응이 필수적이고, 철저한 질문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제품 인증을 서둘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 인증 과정에서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적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내수 서비스의 수출 강화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세가 미진한 이유는 서비스 산업이 내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 보험, 교육, 법률, 경영컨설팅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국내 경쟁에만 집중하기 보다, 신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2016년까지는 소비재 수출 진흥을 주력했다 한다면, 2017년 부터는 서비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다.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6) 정부와의 정책 공조 노력 강화

국제 정치는 국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정세가 혼란할 경우, 대외거래가 불안해 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 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혼란한 정세에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종 외교·통상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 공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협업이 요구될 때 적극 대응하고, 정책 지원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연한 FTA 활용 능력 확보

FTA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FTA 지형이 변화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수출의 등락도 심해 질 수 있다. FTA가 체결된 국가를 적극 타겟팅 하고, 최근 FTA가 발효된 국가들과의 관세 철폐 대상 품목들을 모니터링 하며, FTA 개정 및 폐기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

“ 가격 경쟁력 과
기술경쟁력 보다 맞춤형
상품 기획력이 우선이다 ”

(8) 수출대상국 맞춤형 된 상품 기획

신흥국들의 기술추격 등으로 한국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저가격 제품이 국제시장에 많이 진입될 경우,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가장 많은 대안은 “기술력을 더 높이고, 비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력을 더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없을 때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맞춤형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다.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춤형된 소비재를 개발하고, 해외 제조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된 중간재를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대상국의 제도·절차를 잘 파악하고 바이어·연관 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삼성KPMG 국제통상·관세 전문팀

박문구

전무이사

T: 02-2112-0573

E: mungupark@kr.kpmg.com

심충섭

상무이사

T: 02-2112-7622

E: cshim@kr.kpmg.com

장민재

상무이사

T: 02-2112-7481

E: minjaechang@kr.kpmg.com

최윤식

상무이사

T: 02-2112-6910

E: yunsigchoi@kr.kpmg.com

kr.kpmg.com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